



평화누리길은 아름답다.
 이 길에는 고요한 바다와 맑게 빛나는 강이 있고,
 깊은 숲과 여린 들꽃이 있으며,
 경계의 땅에서 '삶'을 건지는 사람들과
 선한 눈빛의 동물들이 있다.
 이 아름다운 길은 우리에게 숙제 하나를 남긴다.
 분단의 아픔을, 대결과 갈등을 대표하던
 이 길이 이제는 평화의 공간으로,
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져야 함을 말없이 전한다.
 전쟁의 기억 위를 걸으며,
 평화의 꽃이 필 그날을 꿈꾸게 하는 길,
 바로 평화누리길이다.
 -본문 중에서



통일을 염원하며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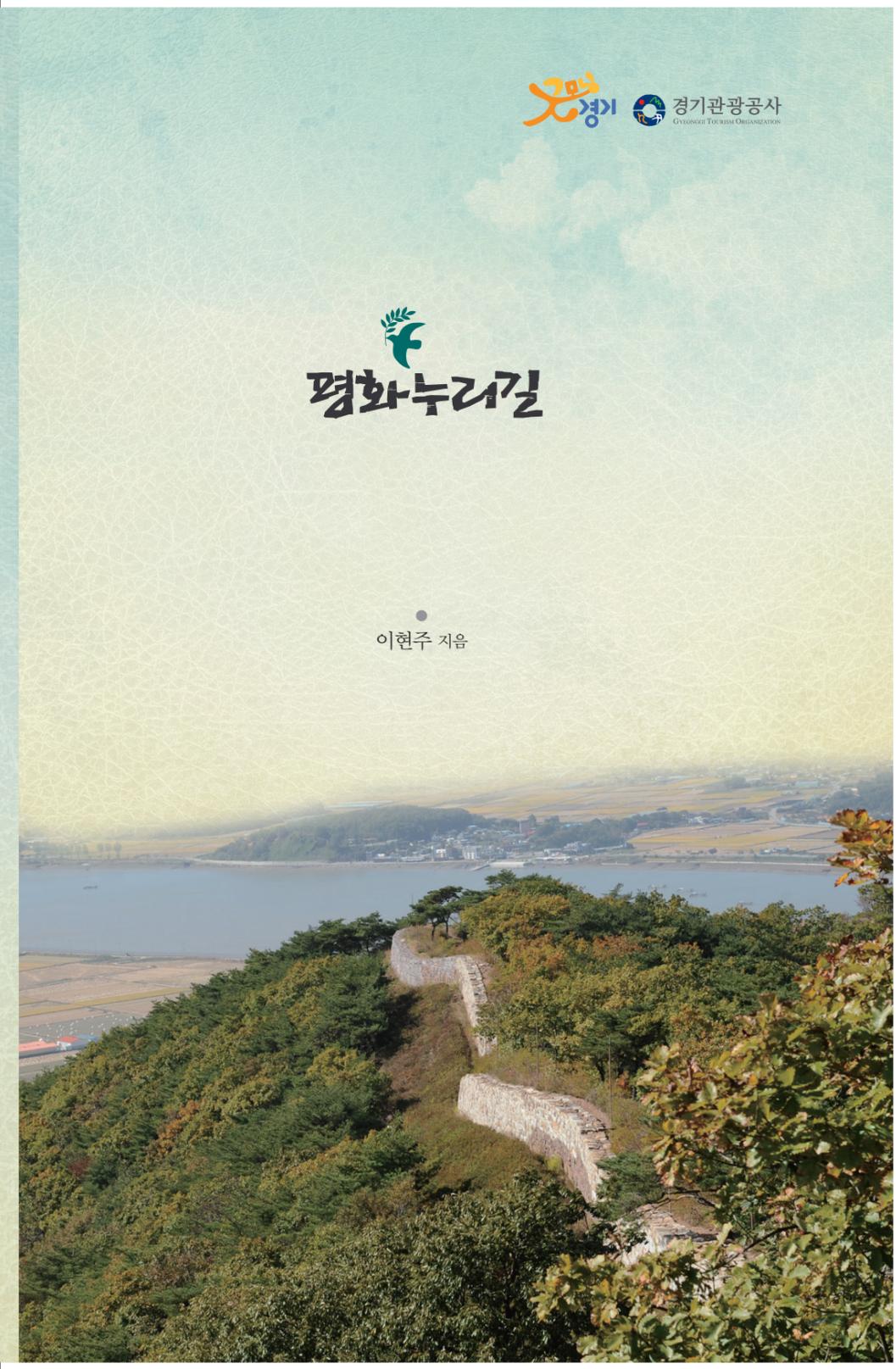
'평화누리길'은 한반도 최북단 도보 여행길이지만, 이 길은 경기도의 것도 대한민국의 것 만도 아닙니다.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의 자산입니다. DMZ는 20세기 세계 냉전사의 마지막 남은 살아 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.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평화와 생명, 소통과 화해를 소망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 -발간사 중에서(경기도지사)

평화누리길은 곳곳에 분단의 아픔이 생생하지만 녹슨 철조망 너머 아늑한 풍경들이 어 느새 경계의 벽을 넘게 합니다. 남북을 자유롭게 날아 넘나드는 새처럼 어느덧 반쪽과 갈 등도 사라집니다. 자유와 평화의 메신저인 이 길엔 오늘도 상큼하고 싱그러운 평화의 새 깃이 시나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
 -평화누리길을 다시 돌아보며 중에서(경기관광공사 사장)

비매품



이현주 지음



이현주

산을 오르고 길을 걷는 여행을 좋아해 여행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. 'AB ROAD', 'Friday', 'Autocamping' 등 여행 잡지사에서 일하며 여행의 노하우를 쌓았다. 현재는 프리랜서로 다양한 매체에 여행 관련 콘텐츠와 문화칼럼 기획 등에 참여하는 작가로 활동 중이다.
 또한 부산 MBC <어부의 만찬>에서는 mc로, 교통방송 <서울 속으로>에서는 맛집의 재발견에서 게스트로 출연해 방송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.
 한국철도공사 <Qubi> 여행가이드북과 한국철도공사 KTX 부산 시티가이드북 등 많은 가이드북 작업에도 참여했다.